

고교 동문들끼리 바닥민심 다지며 치열한 경쟁

광주 북구갑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5명의 후보군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민주당 출마 예정자로는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조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어 한 차례 패배한 정준호 변호사가 내년 총선에서도 또 한번의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풀뿌리' 지방자치 경험을 겸한 문상필·진선거 전 광주시의원도 공천 경쟁에 뛰어든다. 진 전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선거구에 있는 광주 동신고 동문들이다.

조오섭 의원은 6·7대 광주시의원과 대통령직속 지방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을 역임하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만성 정제구간이었던 호남고속도로 확장과 광주역 국가혁신지구 지정 등 굵직한 현안사업을 해결하며 돋보이는 의정활동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당내에서는 원내 대변인, 대선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비대위 대변인 등을 역임하는 등 '민주당의 입'으로 불리며 윤석열 정부와 맞서는 등 당내 활동도 활발하다는 평가다.

지난 총선 경선에서 조 의원에 석패한 정 변호사는 절치부심하며 내년 총선 도전을 준비중이다.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첫 출사표를 던진 이후 광주 북구갑에서 지속적인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최근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지역구인 무등도서관 사거리로 옮기고 지역 주민과 접촉면을 넓혀가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문상필 전 시의원과 공천 경쟁에 나선다. 조오섭 의원과 함께 6·7대 광주시의원을 함께 해온 문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애인 후보단장을 맡아 활발한 활동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전국 장애인 조직 확장과 결집에 주력



조오섭 김주업 문상필



이동국 정준호 진선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거 전 광주시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동구청장 후보로 나섰다. 그는 5·6대 광주시의원을 북구갑 선거구로 바꿔 출마를 준비중이다. 그는 5·6대 광주시의원을 북구갑 선거구에서 지냈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경제특보를 지냈고, 현재 건설업체 CEO다. 국민의힘에서는 광주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북구의원 출신인 이동국 NU산업대표이사도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진보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을 지낸 김주업 진보당 광주시당위원장이 후보로 확정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노무현 비서관 출신이나 문재인 행정관 출신이나

광주 북구를

이형석 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전진숙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행정관, 조현환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공동대표, 김인숙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황순영 정의당 전 광주시당위원장, 윤민호 전 통합진보당-민중당 광주시당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 의원과 전 전 행정관은 지난 제21대 총선에 이어 두 번째 공천 경쟁을 벌이는 리턴매치다. 이형석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사회조정 비서관, 광주시 경제부시장, 광주시의회 의장,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역임하는 등 행정·정치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호남고속도로 확장, 첨단 3지구 경찰서 신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신축 등 자신의 공약이자 주민 숙원사업이었던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첫 해인 2020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5·18 역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리턴매치에 나서는 전진숙 전 행정관은 지역 여성 정치인 최초로 청와대 행정관으로 발탁된 광주 토박이 여성 정치인으로 꼽힌다. 그는 광주에서 시민사회 활동가로 시작해 북구의원, 광주시의원, 청와대 행정관을 거치며 풀뿌리 지방자치부터 중앙 정치까지 골고루 경험한 여성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와대 행정관 재임시에는 사회혁신 플랫폼 등 지역·사회혁신 전국 회를 이끌어 내는 성과를 거뒀다.

'호남 정치를 바꾸겠다'며 당원 중심의 민주정치 실현을 전언



이형석 김인숙 윤민호



전진숙 조현환 황순영

에 내세운 광주전남정치개혁연대 조현환 공동대표도 공천 경쟁에 나선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대선 선대위 조직본부 부단장 등을 역임한 조 공동대표의 선전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북구를 당협위원장인 김인숙 호남사랑 이사장의 출마가 예상된다. 전남도의회와 한국농어촌공사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했다. 정의당은 광주시당 위원장을 지냈던 황순영 정의당 북구지역위원장이 나섰고, 진보당에서는 전 광주시당위원장을 지낸 윤민호 북구 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출마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현역의원 대 검찰 출신...뜨거운 당내 경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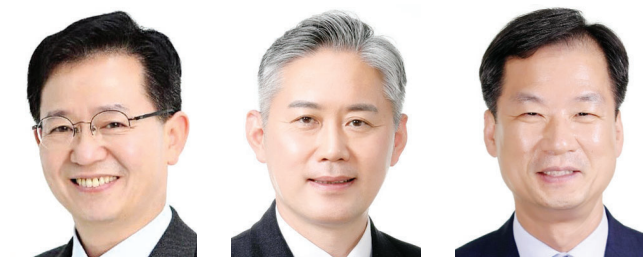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갑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의 재선 도전에 맞서 각 정당별 인사들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에서 관전 포인트는 현역인 이용빈 의원과 전 광주구검찰 출신의 박균택 변호사와의 공천 경쟁이다.

광주지역 8개 선거구 가운데 현역 의원과 1대1 경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현재까지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뿐이다. 특히 두 명 모두 '진명계' (전 이재명계)로 분류되고, 지역에서 인지도도 높아 치열한 경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 출신인 이용빈 의원은 지난 2016년 민주당 '호남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인사로,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다. 초선임에도 당내에서 원내부대표, 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고, 이재명 당 대표 체제에서 정책위 상임부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당내 기반을 튼튼히 다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광주 공군항 이천 특별법 개정안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려인 등에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한 재외동포 포용법 등의 입법활동도 활발하게 해왔다. 그는 8년 동안 지역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구축한 정치적 입지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역구 수성에 나설 예정이다.

이 의원에 맞서는 박균택 변호사는 고검장 출신으로, 이른바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검찰국장, 정책기획단장을 거치며 '검찰 개혁 총잡이'로 불렸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민주당 검찰특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법률 특보를 맡아 윤석열 정부의 과잉·보복 수사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고향인 광



이용빈 김장현 박균택



정희성 황경순

산구에 법무법인 '광산'을 설립해 법률 상담과 자문 등 지역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정현광주시당위원장이 출마한다. 내년 총선을 통해 광주에서 최소 1석 이상 국회의원을 배출하겠다는 목표인 만큼 직접 나선다. 그는 지난해와 올해 중앙당을 오가며 국립광주청소년치료재활센터 유치와 송정역 광장 조성 등 지역 현안 해결과 지역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정의당에서는 황경순 금호타이어노조 위원장이, 진보당에서는 정의성 진보당 공동대표가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지역 내 '진보 표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와신상담 리턴매치...현역의원 복당 최대 관심

광주 광산구를

광주 광산구를 선거구는 '꿈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의원의 지역구로, 내년 총선 전까지 민 의원의 복당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민 의원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당을 위한 결단으로 보고 총선 전 복당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민 의원에 맞서는 도전자들은 지난 2020년 경선에서 한 차례 맞붙었던 김성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과 박시중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이 거론되면서 '리턴매치'가 예상된다. 여기에 '정치 신인'인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공천 경쟁에



민형배 김성진 김용재 박시중



안태욱 정재혁 전주연 최치현

가세했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산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도 출마 결심을 굳히면서 당내 경선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무소속이긴 하지만, 민 의원은 민선 5·6기 광산구청장을 지내며 여전히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김 전 대변인도 출마 준비를 갖추고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다. 그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뒤 27년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역경제국장 겸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등의 요직을 두루 거친 '산업통'이다.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역임하면서 중앙과 지역 경제계의 폭넓은 네트워크가 강점이다.

박시중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지난 총선 당내 경선에서 민형배 후보를 제쳤으나, 권리당원 불법조치 문제로 재경선이 이뤄져 민 후보에게 고배를 마신 뒤 와신상담하고 있다. 정재혁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은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선임 행정관 등 국정 전반을 거친 풍부한 정치 경험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안태욱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 이사가, 정의당은 김용재 중소상공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이 출마한다. 진보당은 전주연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처장이 출사표를 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www.kps.co.kr

Global No.1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